



셋째는 태릉인



우리 집 셋째는 전교에서 키가 제일 작다. 학교에서 키 순서를 알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오며 가며 딱 봐도 그렇다. 올해 5학년이 되었지만 2,3학년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가장 이질감이 없어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밥을 잘 안 먹나요?" 그렇지 않다. 주변 친구들도 인정할 정도로 고봉밥을 먹는다. "잠을 안 자나요?" 우리 아이들은 영유아 때부터 지금까지 늘 9시 취침을 지키고 있다. 유치원 때까지는 낮잠도 꼬박꼬박 재웠다. "그럼 편식 심하죠?" 셋째는 오이와 파프리카를 간식처럼 꺼내 먹는 아이다. 내가 손질해주지 않으면 본인이 알아서 썰길 정도로 좋아한다. 육류도 형제들 중 제일 많이 먹고 멸치볶음, 콩자반 같은 영양가 높은 건강식 반찬을 즐긴다. 곰곰이 생각해봐도 우유, 감자, 토마토를 제외하고는 모두 잘 먹는 편이다.

그런데도 작으니 원통할 노릇이다. 셋째가 2학년 때 이 분야 전문의를 만났는데 엑스레이로 뼈 나이를 측정하더니 4세 반 수준이라고 했다. 의사는 성장 주사를 권했고 평균 신장 대비 하위 3%라 의료보험 적용도 가능하다고 했다. 셋째가 작아서 겪는 서러움이 하나둘이 아니라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지만 지금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아이에게 매일 호르몬 주사를 찌러달라 자신은 없었다.

그리고 이제 5학년이 된 아이는 여전히 많이 작지만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아이다. 정말 신통방통한 것은 이 녀석이 스포츠를 좋아한다는 사실이다. 제 형과 누나는 워낙 스포츠에 소질도 관심도 없었기 때문

에 셋째도 필시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이 아이는 달랐다.

요즘 셋째의 스케줄을 보면 거의 태릉인 저리 가라 수준이다. 일단 5년째 매일 태권도를 수련 중이고 화·목은 수영이다. 수영은 2학년에 시작했는데 제일 수심이 얇은 곳에서도 까치발을 들고 겨우 서 있던 녀석이 이제 제법 수영다운 수영을 하는 것 같다. 보고 있으면 대견해 죽겠다. 수요일은 탁구와 축구. 탁구는 학교 방과 후 수업으로 매번 등록해서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지 계속하겠다고 한다. 축구는 최근 새로 추가된 종목인데 친구 따라 몇 번 축구를 해보더니 자기도 축구 배우게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해서 결국 보내줬다. 요즘에는 축구하러 가는 수요일만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인라인 스케이트 강습, 주말에는 거의 매주 친구네 가족을 따라 농구도 하고 있다. 이러니 어찌 신통방통 하지 않을 수 있으랴.

나는 어렸을 때 공부 잘하는 친구보다 운동 잘하는 친구가 최고로 부러웠다. 나는 발아구하면 공차는 족족 무조건 파울 아니면 아웃, 피구 하면 비명만 지르다가 끝나고, 뽀름은 2단도 넘어본 적이 없었다. 거의 전신운동급으로 심폐 지구력, 순발력, 점프력까지 견비해야 잘하는 고무줄놀이도 노래만 가장 크게 불렀고 실력은 형편없었다. 점프하듯 뛰어올라 리듬감 있게 춤추듯 고무줄을 갖고 노는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지전 거도 탈 줄 몰랐고 톨러스케이트도 질질 끌고 다니는 수준이었고 아이스 스케이트장에 가도 벽 짚고

한두 바퀴 돌고는 벤치에 앉아 수다만 길게 떨었다. 고등학교 이후부터는 남들 매년 겨울마다 스키 캠프 갈 때 나는 따라가서 스키는 안 타고 산장에서 놀기만 하다가 집에 돌아오곤 했다. 운동은 내게 미지의 세계 같은 것이었다.

그러니 내 아들이 운동을 좋아한다는 게 얼마나 신통방통, 신기방기 한지 모르겠다. 물론 운동 실력이 남달리 뛰어나고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내게는 충분히 대견하다. 남들은 영어, 수학 학원 다니느라 다른 사교육은 다 그만두는 판국에 우리 애는 운동만 하나씩 추가되더니 현재 정기적으로 강습 받는 것만 다섯 개가 되었다. 걱정이 있다면 가뜩이나 말랐는데 운동 많이 해서 살이 더 빠지면 어쩌나 하는 건데 그래도 아이가 좋아하니 하는 데까지는 해보라고 하고 싶다.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우리 셋째가 쑥쑥 잘 커줘서 키 작다고 무시하고 깔본 친구들을 다시 만났을 때 꼭 내리다보며 인사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엄마는 그때까지 그저 잘 먹고 잘 재우며 응원해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부디 그것들이 그 어떤 성장주사보다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길 빌며.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정상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비가 하면 틀림없습니다.**



부에나파크 단층 단독 주택 185만불

아직 마켓에 나오지 않은 매물입니다. 3/24/2022 나를 예정 로스코요테스 골프장을 뒷마당으로 앞이 확 트인 전망 좋은 집. 보시면 반하실 집입니다 마켓에 오래 있지 않을 집 빨리 서두르세요
방 4 화 3 3537 sqft 대지 13500sqft



부에나파크 상글홈

방 4개 화 3개 1854 sqft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없는 최상의 관리한 위치의 타운홈. 이중집 2car garage, 저렴한 관리비, 근처 공원과 학교 도보 거리. 자용으로도 아주 좋은 렌트 수입의 매물입니다



엘레이 마지막 남은 개발 지역 \$41만불

방2/화1 1071 sqft 대지 5933 sqft 별채 지을수 있는 포텐셜 많은 집 투자자들의 꿈의 매물



라미라다 새집 2022년생 824천

방 3 화 3.5개 1775 sq ft 타운홈 교통 편리 쾌적한 아늑한 동네 위치 바이올라 대학 근처 투자 매물로도 너무 좋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라미라다 타운홈 43만불

933sqft 렌트하지 마시고 내집 장만하세요 방2 화2개 집전체 마루, 높은 천장, 렌탈 매물로도 아주 좋은 위치, 부에나파크 한인 상권 가까운 거리, 수영장 공원 부담없는 관리.



실비치 타운홈 23만불

시니어 분들만의 도시 공간 레저 월드 방2 화 1 750sqft 대지 1250sqft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에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일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부사장
Vice President
전 미국대학입시 코디네이터
칼리지 카운셀러
DRE Lic. 02086695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Residential * Commercial * Investments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Get it done right with Leah Ivy Chang”**

714.904.1202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